

91.10.2

운전사에 성폭행 당한 승객

“택시회사서 배상책임”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이종욱 부장판사)는 1일 영업용 택시 운전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아무개(28·은행원·서울 용산구 보광동)씨가 택시회사인 한양상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는 이씨에게 1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사 한아무개씨의 성폭행이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승객 운송과정에서 일어났으므로 감독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24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두산빌딩 앞에서 이 회사 소속 서울4 파1344 영업용 택시를 타고가던 중 운전사 한씨와 요금시비를 벌이다 서초구 양재동 트럭터미널 부근 야산으로 끌려가 성폭행당하자 소송을 냈다.

학생 기물파손 피해

학부모에 변상 요구

명지대 용인캠퍼스

【용인=홍용덕 기자】 명지대는 1일 매점직영을 요구하며 용인캠퍼스 학생처장실에 들어가 3백여



서울을 부정정찰하는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부근의 은행에까지 끌고가 돈을 인출하려한 鄭載鎬씨(34·부직·서울 西大門구弘恩동 동원아파트)와 金壽福씨(33·부직·서울 城北구吉昌동)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예방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강도) 강간

91.8.7

대낮 주부성폭행강도

2人組 검거 은행끌고가 현금인출기도

치상(혈)으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를 흉기로 위협해 趙씨집 부근에 있는 상업은행화

반경 서울 城東구 華陽동 趙모씨(25·여) 집에 침입

을 인출하려다 趙씨가 비

안방에서 혼자 잠자고 있던

다가 이중 鄭씨는 이 은행

趙씨를 흉기로 위협해 번

청원경찰에 의해 은행에서

같이 성폭행하고 현금25만

3백여 m 떨어진 상가골목

원과 금팔찌 등 1백10만원

또 달아난 金씨도 다음

어치의 금팔찌를 빼앗았다는

남인 7일 새벽 1시경 서울

것이다.

길에서 잔뜩 흥인 경찰에

이들은 또 趙씨가 2백

는 사실을 알아내고 趙씨

“선불 윤락도 관계강요땀 강간”

○...윤락녀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특수강간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적승 부장판사)는 5일 성관계를 거부하는 윤락녀를 흉기로 위협해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임채갑(22·부산 사하구 피정3동 26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돈 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질 것을 사전에 승낙했다 하더라도 이런 약속은 범법행위이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이수윤 기자〉

91.12.6